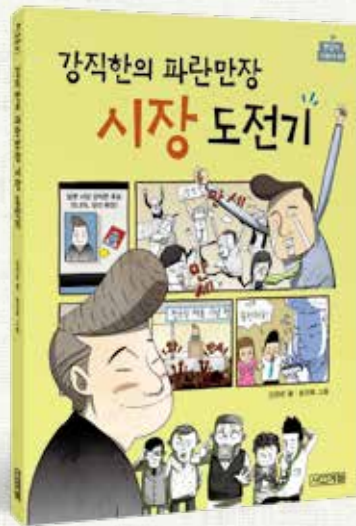

강직한의 파란만장 시장 도전기



김찬곤 글 | 송진욱 그림 | 116쪽

- 4학년 1학기 사회 3.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
- 4학년 2학기 사회 3. 지역 사회의 발전



어린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을 어떻게 뽑고, 시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다. 시장이 하는 일을 이야기를 통해 알려 주는 것 뿐 아니라 시장이 직무를 해 나갈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까지 다루고 있다.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과정, 전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을 때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, 시장 임기 동안 내주는 관사에 얽힌 내력, 시장과 공무원의 관계, 시청과 지방의회를 이야기를 구성하여 들려준다.

(학습 목표)

이 책은 광역·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, 구청장, 군수가 하는 일을 '강직한 시장'을 캐릭터로 하여 재미있게 말하고 있다. 시장은 한 도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. 시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시는 살림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고, 반대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. 시장은 해마다 시청이 쓸 수 있는 돈을 아껴야 하고, 낭비가 없이 써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. 시장이 하는 일은 아주 큰 일 같지만,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고쳐 나가 고 바로잡아 갈 때 그 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 마음 자세라 할 수 있다. 이 자세가 어떤 것인지 이해한다.

- 우리나라 지방 선거의 역사를 이해한다.
-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과 광역 지방자치 단체장의 차이를 학습한다.
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일의 차이를 알아본다.
- 시장이 하는 일을 알아본다.
- 시청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이해한다.





(독전 활동)

“내가 시장이 된다면?”이란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쓰게 한다.

아래 보기를 들려주며 구체적인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.

➔ 첫째, 나는 이런 자세로 일하겠다.

- 돈만 생각하지 않겠다.
- 시장 일을 대충하지 않겠다.
- 열심히 일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.
- 하루하루 일한 만큼 월급을 적당히 받겠다.
- 자만하지 않겠다.



➔ 둘째,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.

- 깜박거리기만 하는 신호등에 숫자가 나오도록 하겠다.
- 시청 복도 형광등을 절반으로 줄이겠다.
- 학교 둘레에 CCTV를 많이 설치하겠다.
-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게 하겠다.
-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벨트를 꼭 조이게 하겠다.

➔ 셋째,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.

- 시장이라고 잘난 척하지 않겠다.
- 친한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지 않겠다.
- 세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겠다.
- 뇌물을 받지 않겠다.





(독후 활동 1)

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발표하게 한다.

- ➔ 강직한 시장은 인간에게 필요한 덕성 가운데 ‘겸손’이 가장 어려운 덕성이라 말한다. 시장이 갖춰야 할 겸손의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?
- ➔ 단체장에게 내주는 ‘관사’의 내력과 강직한이 관사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까닭에 대해 말해 보자.
- ➔ 강직한 시장이 집무실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옮긴 까닭은 무엇일까? 그리고 집무실과 접견실 벽을 터서 한 공간으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?
- ➔ 강직한 시장은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한다. 왜 그럴까?
- ➔ 강직한 시장이 말하는 ‘생활정치’란 무엇일까?
- ➔ 시의회는 무슨 일을 할까?
- ➔ 강직한이 시장이 된 뒤 달뚝 시청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?





(독후 활동 2)

어린이 민원 신청을 해 보자.

- ➔ 5~8명씩 모둠을 짓는다.
- ➔ 모둠원들은 각자 할 일을 정한다. (보기: 기록하는 사람, 사진을 찍는 사람, 동영상을 찍는 사람, 민원 신청서를 쓰는 사람 등)
- ➔ 학교 둘레를 나가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고칠 것을 찾아본다.
- ➔ 모둠장은 모둠원들의 의견을 모아 그 가운데 하나를 정하고,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다.
- ➔ 모둠에서 토론을 거쳐 민원 신청서를 쓴다.
- ➔ 시청 홈페이지 민원 신청란에 접수한다.

▶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 줄 수 있다.

문제점

근린공원 울타리에 장미를 심었는데, 봄만 되면 장미 줄기가 자라서 인도로 넘어온다.
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장미 가시에 긁히기도 한다. 특히 밤에는 안 보여서 더 위험하다.

해결 방법

- ① 봄에 가지치기를 한다.
- ② 장미 가시를 묶어 인도로 넘어오지 않게 한다.
- ③ 장미를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.